

제418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1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0월18일(금)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2.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1
2.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5

(15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정감사계획서를 변경하고 국정감사에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을 추가로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25일 종합감사 대상기관에 대검찰청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규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규택 위원 지금 종합감사 25일 날 대검찰청을 추가하시겠다는 그런 안건인 것 같은데요. 지금 21일에 대검찰청이 감사 대상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1일 날 감사를 해 보지도 않고 지금 25일 날 추가를 하시겠다는 게 대검찰청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그것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 그것 때문에 또 급하게 이렇게 종합감사 일정에 포함을 시키시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종합감사라고 하는 것은 대검찰청은 원래 없었고요. 법무부, 감사원, 공수처, 대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곳이 원래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 그동안에 감사하면서 지적 못 했던 사항이라든지 추가로 지적이 필요했던 사항에 대해서 해야 될 시간도 부족한데 여기다가 아직 감사를 해 보지도 않은 대검찰청을 포함시키면 이게 결과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종합감사 때 다른 기관에 대한 필요한 우리 국회의원들의 질의시간을 빼 가지고 민주당에서 대검찰청만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다 이런 취지이신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이때까지의 관례도 없었고 또 대검찰청 국감도 아직 해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종합감사에 갑자기 대검찰청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광규택 위원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에 대한 의사진행에 대한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규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려면 7일 전에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7일 전에 해야 되고요. 의결하고 나서 대검찰청 추가 종합국감 때 출석하는 것이 필요 없게 됐다, 일주일 동안 그러면 그때 다시 취소 의결을 하면 되는데요. 그때 다시 의결하면 7일 규정에 묶여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7일 규정에 해 놓고요.

그리고 개인 질의시간이 부족하다 이 부분은 만약에 대검찰청이 종합국감에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빼앗고 부족하다면 차수 변경해서 하루 더 하는 걸로, 그러면 질의시간은 부족하지 않고 보충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검찰청이 종합국감에 나와서 질의시간이 부족하면 차수 변경해서 1박 2일로 국정감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원 간사님 토론해 주세요.

○**김승원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시고……

○**위원장 정청래** 아니, 토론은 종결하려면 각 당의 한 명씩은 해야 됩니다. 국회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해 주세요.

○**김승원 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들으니깐 저는 납득이 다 잘 돼서 토론을 종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건 저희가 이제 법무부라든가 대검에 요구한 자료 제출도 아직 안 온 것들이 많고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단 25일 날 기관증인으로서는 한번 더 과연 자료 제출이 되었는지 또 저희가 서면질의한 것이 잘 되었는지도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25일 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일반증인으로 언제 언제 나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계속 국회를 무시하고 불출석 사유서도 안 낸 채 안 나온 증인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나왔다면 저희 국회가 좀 더 단단하게 일반증인이든 기관증인이든 출석할 수 있는 이런 담보를 갖춰 놓고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 국민들께도 성실하게 잘 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기관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승원 간사님 토론에 덧붙여서 저도 말씀드리자면 제가 20년 전부터 국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온 얘기가 예결위 상설화를 하자 그리고 국정감사도 상시적으로 하자, 이렇게 위원들이 실제로 여야 막론하고 많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법 이렇게 해서 화요일 날, 목요일 날은 무조건 소위를 열어라, 상임위는 주 몇 회 이상 해라 이게 지금 법적으로 다 국회법상 돼 있는데 사실 그걸 지키

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국정감사는 국회의 입장에서는, 피감기관은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많이 하는 것은 국회한테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관례를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감사원도 현장 시찰하고 다시 현장 국감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례는 관례대로 존중받을 부분이 있겠으나 또 관례가 법을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결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의결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태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준태 위원님 토론하세요.

○박준태 위원 대검찰청을 감사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올리려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하자마자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검찰총장 탄핵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입니까? 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한다고 해서 제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야당 수석 최고위원이 말하는 것이라서 제가 참 이것은 문제다, 심각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도 그냥 개인 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계엄 주장할 때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오늘 오전에 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이 검찰총장 탄핵 공식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사실인지 법사위원들께 묻고 싶습니다. 전국의 검사들 겁 주고 망신 주려는 것 아닙니까? 검사들의 상징 인물인 검찰총장을 탄핵 추진해서 민주당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 이것 보여 주려는 것 아니에요?

○김승원 위원 국민들의 분노 때문에 그런 거지요.

○김용민 위원 김건희 봐주는 거랑 민주당 건드리는 거랑 뭘 상관이에요?

○박준태 위원 그럴 거면 그냥 탄핵하십시오. 국정감사라는 엄정한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호칭도 좀 정제해서 쓰십시오. 저 법사위원 하면서 이재명 대표,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질의 할 때 많이 있지요. 저희도 문제점 얘기합니다. 최소한 어떤 호칭이라도 붙여서 상대 정당에 대한 또 그분들을 지지하는 분들에 대한 예의를 갖춰서 합니다.

공식적인 국회 회의에서 맨날 윤석열, 김건희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그렇게 좋아합니까?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도 다 기관의 장들이고 또 그런 호칭을 붙이지 않으면 우리가 증인·참고인 이런 호칭을 붙여서 예우를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다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준태 위원님 하실 말씀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박준태 위원님인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탄핵 조사 청문회 같은 것 하지 말고 그냥 본회의에서 탄핵해라 또 이렇게 주장하신 바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의 입장이고 개인이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은 충분히 하신 걸로 하고.

마지고 보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사실 그때 최초의 탄핵 사례가 생긴 거고요, 물론

인용은 되지 않았지만.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지금 있는 저희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전신 당에서 힘을 합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탄핵한 나라인데 검찰총장인들 서울중앙지검장인들 탄핵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만고의 법, 진리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해야 되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책임은 각자 정치적 책임을 지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는 총선 때 또 심판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영교 위원 의사진행발언 저쪽 둘 했으니까 저희도 한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만합시다. 그냥 핑퐁처럼 왔다……

○서영교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만하잡니다, 그만하세요.

○서영교 위원 아닙니다. 저는 하겠습니다. 시간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그만하시지요.

○서영교 위원 1분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하세요.

○서영교 위원 국정감사 중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되고 내놓은 결과가 이겁니까? 그래도 좀 나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습니까?

누구는 작은 것 하나로 다 기소시키고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몇 박 며칠 압수수색하고 공개 소환해서 망신 다 주고 국회에 와서 체포영장 날리고 그리고 누구는 주가조작으로 온 세상이 다 알고 재판 과정에서 통정매매 계좌가 다 나오고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이것을 검찰이 무혐의 칩니까?

어떻게 이려고 우리가 가만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장을 열어서 질문하고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절차라도 밟아서 나오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토론 종결 동의가 있었습니까?

○박균택 위원 예, 토론 종결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균택 위원님의 토론 종결 동의가 있었고요.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균택 위원님의 토론 종결하는 동의가 있었고요. 이성운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준태 위원 있습니다. 표결하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이의가 없는 걸로 그냥 하시지……

○박준태 위원 있습니다. 표결하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15시17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방금 변경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라 심우정 검찰총장 등 11명을 10월 25일 종합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심인보 기사를 오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토론해 주세요.

○유상범 위원 민주당에서는 심인보 기자가 무슨 전가의 보도 같습니다. 모든 청문회…… 제가 심인보 기사를 벌써 한 다섯 번 봤나요,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국감장까지? 이 정도 되면 차라리 증인으로 신청을 하세요. 심인보 기자가 민주당에서는 구세주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같은 기사를 다섯 번, 여섯 번씩 계속 우리 법사위 각종

회의에 항상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킵니까?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증인으로 해 가지고 증언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무 책임 없이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참고인으로 불러서 또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할애받아서 특히나 위원장님의 아주 하해 같은 배려 속에서 원하는 시간 다 얘기하고 다른 증인들은 충분한 얘기 시간 못 갖고. 이런 상황에서 또 불러 가지고 이걸 한다. 나는 심인보 기자가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열심히 이런 분을 불러서 계속 이 법사위 회의장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 것저는 반대고요.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여기 계시는 중에 거의 한 대여섯 시간 있으면 마지막 중요한 때 몇 번 질문에 답하고 가시는 것 같은데 여기 나와 계신 서울검사장을 상대로 민주당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충분하게 질문하시고 준비도 많이 되신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참고인까지 필요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박은정 위원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께서, 아까 오전에도 송석준 위원님이 부적절한 표현을 하셔서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유상범 위원님께서도 지금 굉장히 부적절한 말씀 하셨습니다.

심인보 기자는 뉴스타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가장 먼저 취재하고 그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소상히 알린 가장 전문적인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저희 법사위에서 계속해서 의제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특검법 통과됐으면 이런 일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인으로 불러서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또 어제 불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불기소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유상범 위원께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기자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은 저는 참고인에 대한 모독이다. 우리가 증인이나 참고인들을 부를 때 최대한 존중을 해서 여기 국회에 오셔서 가지고 증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서울중앙지검의 정말 어이없는 말도 안 되는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심인보 기자가 그동안 취재한 자료들에 기반해서 그 불기소가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그 것을 증언해 줄 가장 정확한, 적합한 기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참고인으로……

그리고 참고인·증인이라는 것은 사실을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심인보 기자가 자기가 주가조작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의 일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다만 전문가로서 취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전문가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참고인으로 우리가 국회에서 그 의견을 듣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승원 간사님 토론해 주세요.

○김승원 위원 저는 토론과 의사진행발언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국민의 혈세인 특활비가 과연 제대로 쓰였는지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또 들

여다봤지만 사실은 지난번에 나왔던 기자가 6만여 장의 특활비를 하나하나 다 조사를 했고 그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쓰였으면 기사를 썼을 것이다. 그런데 6만 장 어느 것에도 특활비 명분대로 근거대로 쓰여진 게 없더라, 그게 저는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 기자가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한 주제에 집중해서 탐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번에 심인보 기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만큼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본인의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탐사를 하고 취재를 했던 기자이고 또 아마 법정에 가서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졌는지도 다 알고 보도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심인보 기자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의사진행발언은 지금 저희 주질의를 7분 플러스 1분 위원장님이 해 주시는데 혹시 원하는 위원님이 있으면—저는 원하지만—여기서 주질의는 안 하고 증인 신문할 때 예전처럼 한꺼번에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증인들이나 참고인들도 빨리 와서 증언할 수 있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토론 겸 의사진행발언인데 의사진행발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공지는 안 했는데요 주질의 때는 증인·참고인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질의를 하지 않고 증인·참고인이 출석했을 때 보충질의 때 같이 합쳐서 하겠다 그러면 7 플러스 1분 그러면 8분에다가 또 5 플러스 1분 하면 6분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8 플러스 6이면 얼마가 됩니까?

○김승원 위원 14분 정도……

○위원장 정청래 그렇게, 그것은 시간을 뺏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이 있으면 미리 신청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장으로서는 사실은 증인과 참고인이 먼 거리에서 국회까지 나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국회에서 그 수고로움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한 대접을 해 드리지도 못하는데 어쨌든 국회의 필요에 의해서 나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낌적인 느낌상 증인과 참고인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도 피의자나 참고인이냐 이것이 느낌이 확 다른 것처럼 국회도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면, 나는 증인 하겠다 그러면 증인도 하는데 참고인으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채택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국정농단 사건 때도 박영수 특검에서 많은 기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검사라 할지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해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은 검사들도 받지 않습니까?

심인보 기자는 제가 알고 있기로 5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취재를 한 기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증인보다는 참고인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상범 위원 조배숙 위원께서 이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조배숙 위원님 토론하세요.

○조배숙 위원 제가 신상발언 겸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 발언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군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자리는 저희들은 다 자연인이 아니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또 의혹에 여러 가지 정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발언하는 내용에는 저는 성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책을 냈어요. 그 책에, ‘당신들의 댄스 댄스’에서 거기에 명확하게 257페이지에 나옵니다. ‘이재명의 현금인출기 코나아이’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혹의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하라는 그런 얘기였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것이 있으면 본인의 발언시간에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인 심인보를 추가로 소환을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최근에 위원장님께서 비교적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시려고 노력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인·참고인 소환 부분도 조금 균형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화영 피고인에 대해서 연어, 짜장면 먹고 회유를 당해서 진술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은 설주완 변호사와 이한이 변호사가 가장 잘 압니다. 그 옆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또, 설주완 변호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두 분을 같이 증인으로 소환해서 얘기를 들어 봐야 우리가 공평하게 제대로 실제적인 진실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편파적으로 한 당에 좀 불리한 부분은 소환을 안 하고 또 한쪽이 원하는 그런 부분만 이렇게, 또 참고인도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다섯 번입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편파적인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설주완 그리고 이한이 이 두 분도 좀 증인으로 같이 소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하여튼 잘 들었고요.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기 가수는 방송에 자주 나옵니다, 국민들이 원하니까요.

○유상범 위원 전혀 적절하지 않아요.

○주진우 위원 아니, 설주완 변호사는 왜 안 해 주세요? 설주완 변호사 좀 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설주완 변호사는 왜 안 해 주세요?

○김승원 위원 그때 다 혐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몇 분 빼 드리고 이렇게 다 한 겁니다.

○유상범 위원 빼 주기는, 우리 신청한 것 한 명이라도 받아 줬으면 얘기해 봐.

○김승원 위원 국민의힘 의원들 많이 빼 드렸잖아요.

○유상범 위원 그러면 우리도 민주당 의원님들 다 할까요?

○위원장 정청래 위원님들, 심인보 기자는 누가 뭐래도 5년간 도이치모터스 부분에 대해서 심층 취재한 전문 기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심인보 기자만큼 도이치모터스 주

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을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수사한 검사들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상범 위원** 설주완이랑 이한이도 같이 출석합시다.

○**김용민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김용민 위원님의 토론 종결 동의를……

○**유상범 위원** 설주완, 이한이도 같이 채택 여부를 결정해 주세요. 지금 요청할게요.

○**조배숙 위원** 같이 하면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용민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경태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종결 동의를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가 국회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동의 반복 계속하고 있잖아요, 조항에 대해서.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의 단서에 따라서 거수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다시 국정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참고인 명단

참고인(1인)

성명	직업(소속 및 직위)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비고
심인보	기자	10. 18.(금) 서울고등검찰청 등	

○출석 위원(18인)

곽규택 김승원 김용민 박균택 박은정 박준태 박지원 서영교 송석준 유상범
이건태 이성윤 장경태 장동혁 전현희 정청래 조배숙 주진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박동찬
전문위원 이화실